

■ 서울 광화문 '4·3 추념식' 참석 시민 168명에게 물었더니...

# 10명중 6명 “제주4·3은 양민학살”

## 4·3범국민위 설문... 응답자 86% “4·3 안다”

제주4·3에 대해 비교적 관심이 높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제주 4·3을 양민학살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4·3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 4월 3일부터 5월 5일 사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주 4·3 제71주기 추념식과 4·3문화제 등에 참석한 일반인 16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4·3범국민위는 이번 설문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제주 4·3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응답자의 86%가 제주 4·3을 상세

하게 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95%에 달했다. 이어 여순사건(56%), 노근리 학살(47%), 보도연맹(43%) 등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지난 2017년 제주4·3평화재단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지도가 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근리 양민학살사건(75.7%), 제주4·3(68.1%), 여순사건(63.9%) 순이었다.

4·3범국민위 박진우 사무처장은 4·3인지도가 2년전 보다 높게 나온 이유에 대해 “지난해 제주4·3 70주년을 거치며 제주4·3이 전국에 널리 알려졌고 또 올해에는 국방부, 경찰

청의 사과 표명이 있는 등 많은 조명을 받은 것이 인지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또 4·3추념식과 4·3문화제에서 현화하거나 분향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 인지도가 높게 나온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가 제주4·3을 ‘양민학살’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제주4·3을 ‘학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이 35%로 뒤를 이었다. ‘폭동’ 또는 ‘반란’이란 응답비율은 2%에 그쳤다.

제주4·3 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묻는 질문에서도 ‘학살’이라는 응답이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4·3의 진상이 얼마나 규명됐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는 ‘잘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9%로 다수를 차지했다.

제주4·3 해결을 통해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화해상생(21%), 정의구현(21%), 평화정신(19%), 인권신장(16%), 민주발전(12%), 통일지향(9%)이 꼽혔다.

4·3 유가족 18명을 대상으로 제주 4·3의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 44%가 토벌대를 꼽아 가장 많았고 이어 모른다(33%), 무장대(17%)순이었다. 또 67%가 정신적 트라우마, 연좌제 피해 등 4·3에 의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4·3범국민위는 “이같은 결과는 유가족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제주를 떠나면서 가족의 희생경위에 대해 명확히 모르거나 피해의식으로 인해 답변을 꺼리는 결과로 추정된다”면서 “제주 4·3에 대한 피해도 계속되고 있어 적절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파출소에 여자경찰이 안보인다

### 제주 여경 배치율 32%... 전국 꼴찌 수준

제주지역 파출소 10곳 중 7곳에는 여성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20곳 파출소와 지구대 중 여성 경찰관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은 667곳이다.

제주에는 현재 파출소 19곳과 지구대 7곳이 있다. 파출소는 관할하는 행정 구역이 2개 이하이며, 지구대는 3곳 이상의 행정 구역을 담당한다.

도내 26곳 파출소·지구대 중 여경이 배치된 곳은 11곳으로 여경 배치율이 46.2%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67%)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제주지역 파출소·지구대의 여경 배치율은 전북(29.9%), 전남(39.3%), 경북(43.3%)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다. 울산과 광주 지역에는 모든 파출소와 지구대에 여경이 배치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여경 배치율을 보였다.

특히 제주지역은 지구대보다 파출소의 여경 배치율이 현저히 낮았다. 19곳 파출소 중 여경이 배치된 곳은 고작 31.6%인 6곳에 불과했다. 파출소로 범위를 좁혀 여경 배치율을 전국과 비교하면 제주 지역은 전북에 이어 2번째로 낮았다. 도내 지구대의 여경 배치율은 85.7%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약취관리지역 취소 소송 도내 양돈농가 최종 패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약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반발해 제주 양돈농가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약취관리 대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도내 양돈장 대표 5명이 상고한 ‘약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3월 2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비롯됐다. 약취방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약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약취배출 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에 들어간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약취방지 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약취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개선 명령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상윤기자



제주 글로벌 다문화 축제 26일 제주학생문화회관에서 '다름을 넘어,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제주글로벌 다문화축제가 열린 가운데 축제장을 찾은 많은 도민들이 다양한 세계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기자

## 현직 공무원 하수공사 뇌물수수 혐의 조사

### 경찰, 근무부서 압수수색

제주도 현직 공무원이 하수공사와 관련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도 현직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도청 모 부서에 근무하면서 서귀포지역 하수

도 공사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A씨가 근무중인 제주도청 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 불법조업 중국어선 잇따라 적발

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9시30분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39km 해상에서 망목규정을 어기고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A호(74t·승선원 9명)를 EEZ범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A호는 정해진 망목 규정(50mm)보다 더 촘촘한 43mm 규격의 그물코로 조기 등 잡어 2250kg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호는 조업 일지에도 잡은 어획물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밝혔다.

이보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23일 오후 1시쯤 차귀도 남서쪽 146km 해상에서 정해진 망목 규정보다 촘

촘한 43mm 규격의 그물을 덮개로 덮지 않고 배에 실어 운항중이던 중국어선 B호(99t·승선원 17명)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B호는 조업일지에 어획물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주해경은 지난 10월 22일 오전 10시쯤 차귀도 서쪽 102km 해상에서 승선원 명부와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중국 어선 C호도 EEZ범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사후에 걸쳐 나포된 이들 중국어선은 모두 담보금을 내고 석방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 보호를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 체형치료 여성 몸짱짓 지법 50대 남 징역 4년

체형교정 치료를 받으려 온 여성 손님의 신체를 만져 다치게 하는 등 유사강간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관 사정봉기)는 유사강간치상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0월 22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의 한 체형교정 센터

치료실에서 A(24)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서술시 강남구에 비슷한 센터를 차려놓고 센터를 찾아온 손님에게 체형교정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돈을 받는 등 부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부정의료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해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만큼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 앵배추 브로컬리 무우 앵패 배추 → 희소식

##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앵배추 브로컬리 앵패 배추 (500ml당 500배 희석)**

- 소독: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자**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우**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늘**

- 소독: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말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